



## 영등포 디지털인쇄 선두주자 신우디앤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까지 하이브리드로 승부한다

도시친화형 산업인 인쇄는 도시 곳곳에 밀집단지를 구성하는 특성이 있다. 그중에서도 영등포 지역은 구로와 함께 서울 서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인쇄단지로 손꼽힌다. 그런데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영등포 지역도 몇 년 전부터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곳도 있지만, 당당히 대응하는 업체도 있기 마련이다. 신우디앤피는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높이 디지털 깃발을 올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까지 하이브리드로 승부하는 후자의 대표주자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신우디앤피(대표 김진열)는 2005년에 후지제록스의 도큐컬러 5252를 도입하면서 디지털인쇄와 인연을 맺었다. 2005년은 디지털 인쇄에 대한 인쇄업계의 인식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때였다. 이를 통해 신우디앤피는 기존 시스템과 상호보완하며 업무 범위를 넓혀갔다.

신우디앤피는 현재 스크린의 트루프레스TP344, 후지제록스의 도큐컬러1000, 누베라288, 도큐컬러700 등의 디지털인쇄기와 양면 경인쇄기 2대, 단면 경인쇄기 1대 등의 아날로그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호리존 중철기를 비롯한 무선철기, 정합기, 재단기 등의 후가공 장비도 보유함으로써 디자인

에서부터 인쇄 및 제책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고부가가치 사업 지속 발굴

신우디앤피는 디자인, POD, 경인쇄 등 세 파트로 업무가 분화돼 있다. 3층의 디자인실에서 디자인을 마치면, 1층 출력실에서 데이터를 출력하고 디지털인쇄물은 1층의 디지털인쇄실에서, 아날로그인쇄물은 지하의 공장에서 인쇄가 이뤄진다. 인쇄가 끝나면 지하 공장에 설치된 후가공 장비를 통해 실공간으로 마무리 작업이 이뤄져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다.

신우디앤피는 처음에는 출판물 중심의 인쇄업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업인쇄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디자인실의 역할이 크다. 고부가가치로 연결되는 상업인쇄 분야는 까다롭고 수준 높은 디자인 품질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몇 년 전부터는 디지털인쇄기를 지속적으로 보강함으로써 변화의 트렌드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이로써 포토풀, 청첩장, 초대장과 같은 시장 움직임이 활발한 분야로의 진출을 타진중이다.

### 미래 비전은 IT산업 접목 통한 새사업 발굴

신우디앤피는 시대의 트렌드인 IT산업과 접목을 통한 아이디어 상품 개발이란 미래 비전을 키우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초에는 웹투프린트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트렌드 변화의 측면에서 선행하는 투자 결정이다.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도입 전까지 응용 플랫폼을 시스템공급사와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신우디앤피는 기존의 아날로그 물량은 경인쇄기로 소화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에도 선행 투자함으로써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인쇄업체로서의 강점을 키워가고 있다.



1. 사옥 3층에 마련된 신우디앤피 디자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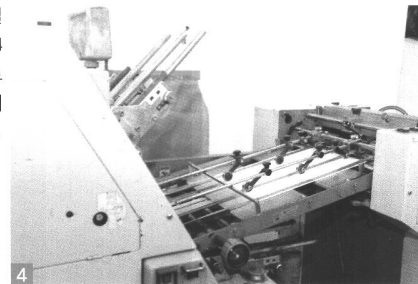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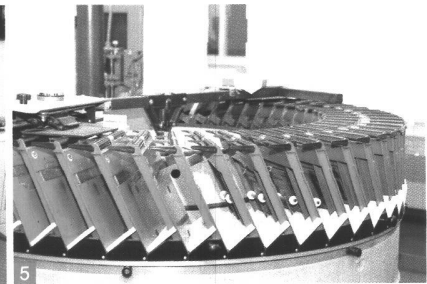


3

- 2. 습식 디지털 인쇄 방식의 스크린 트루프레스344
- 3. 하이엔드 디지털 인쇄기 후지제록스 컬러 1000 프레스
- 4. 아날로그 작업을 담당하는 경인쇄기
- 5. 각종 후가공기로 인쇄작업을 마무리한다.



4



5



## New Interview 김진열 대표



### ☞ 참신한 아이디어로 신기술 선행 계획 ☜

#### 요즘의 관심사는?

변화하는 시대에서 대응하기 위해선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선행해야만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 무턱대고 투자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어떤 시장이 성장할 것인지, 또 어느 시기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에 대한 고민이 매일 이어지는 이유다.

#### 회사 운영의 원칙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다. 신우디

앤피는 대부분의 작업을 의뢰가 들어온 날에 바로 처리한다. 이러한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 능력이 30년 인쇄업을 지켜온 신우디앤피의 힘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신우디앤피의 '디'와 '피'는 디자인과 프린팅의 약자이다. 이름처럼 디자인과 프린팅을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기획디자인에서 제판 및 출력, 인쇄와 후가공에 이르는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 부분별 특성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